

## 향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거복지 지원

### LH와 업무협약 체결...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실질적 혜택 기대

향군은 11월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성남관교사업본부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선도해가는 LH가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과 함께 1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복지 지원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보유중인 매입 임대주택을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제공하고 향군은 지자체와 입주 희망 제대군인의 수요를 조사하고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LH가 검증과정을 거쳐 입주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19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약 7만여 명이다. 향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인원을 제외하고 현재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복무 제

대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군과 LH는 서명한 협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업무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변창흠 LH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복무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에게 주거소요를 반영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지역수요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주거 불안정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에 업무협약을 통해 수요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게 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1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복지를 지원키로 했다.

## 향군, 분단상징 판문점 찾아 안보의지 재확인

### JSA 장병 노고치하, 격려금 전달...확고한 군사대비도 당부

향군 회장단과 임직원들이 11월 10일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아 굳건한 안보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김진호 향군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JSA 대대장의 안내로 'JSA 안보견학관'에서 판문점 지역 현황을 소개 받은 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대통령 기념식수, 도보다리, 대성동 마을을 둘러보고 조국의 분단 현실을 몸소 체험하는 한편 향군 본연의 안보 활동에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당시 현역으로 복무했던 기억을 상기하며 그때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이야기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DMZ내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에 4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들이 혜택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기도 했다.

김진호 회장은 JSA 대대장과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



을 전달하면서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능률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반도 안보 역사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등 우리의 안보 현실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군이 확고한 군사대비 태

세를 갖추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이번 견학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안보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안보단체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이 재개됨에 따라 이번 회장단 견학을 시작으로 본회 모든 직원들까지 확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2면〉

## 향군 회장단 서욱 국방장관 취임 축하 방문

### 서 장관, 향군이 제2보루로서 적극 지원 당부



김진호 회장과 육·해·공군 부회장, 이상훈 전 회장 등이 11월3일 국방부를 방문, 서욱 신임 국방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안보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서욱 국방장관은 원로 선배님

들이 직접 찾아 축하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향군이 국가 안보 제2보루로서 우리 군이 확고한 국방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2명 전사, 16명 부상 “결코 잊지 않을 것”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를 맞아 11월23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합동묘역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전투영웅 추모식이 거행되어 북한의 도발로 희생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은 과거의 아픔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남과 북은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사가 말해주듯,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지난 2010년 11월23일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 사격 훈련 도중 북한이 연평

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 발을 무차별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군부대 공사 중인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한편 연평도 현지 평화공원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용진군 부군수, 해병대 연평부대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 ■ 회원기고

# 포격 도발 10년...연평도 어제, 그리고 내일

10년 전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 1,400여 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서해 연평도에 갑자기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170여 발의 포탄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것이다.

포탄은 민간이 사는 마을에도 떨어져 가옥 수 십 채가 파손되고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받아 부두에서 배편을 기다리던 서정우 하사는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곧장 부대로 발길을 되돌렸고, 입대한 지 세달 밖에 안된 문광욱 일병은 전투준비를 위해 달려나갔다.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우리 해병대는 북한의 도발 13분 만에 K-9 자주포로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고, 공중에서는 KF-16 전투기와 F-15K 전폭기가 일제히 출격하는 등 대응태세를 갖췄으며, 국방부는 오후 2시 50분 서해 5도 지역에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미군은 오키나와의 F-22와 공중급유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다. 북한은 MiG-23 3대를 출격시키고 경비정도 출동시켜 상황은 공중과 해상에서도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다.

오후 3시31분, 북한이 포격을 중지하면서 전투는 종료되었지만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전사하고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당시의 포격 도발은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8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처행태가 북한의 추가 도발 유혹을 불러왔다는 비난도 일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당하고 민간인과 병사들이 사망한 북한의 반문명적 만행에 분노했고 국내외에서도 북한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다. 군은 5일 후인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 인근에서 CVN-73 조지 워싱턴을 포함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스테담, 피츠제럴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사일로, 카우펜스,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인 하와이, 화물탄약선 1척, 보급선 1척 그리고 유조선 1척 등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수많은 도발을 감행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인을 직접 공격한 것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처음이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4월5일 장거리로켓 발사실험과 동년 5월25일 제2차 핵실험, 11월10일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과 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공작원 직파, 2010년 3월26일 천안함폭침사건, 11월21일 핵무기생산을 위한 우라늄농축 생산시설 전격공개 등 불과 1년 동안 공세적이고 전투적인 대남 도발을 이어왔다. 이런 와중에 국군과 주한 미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육·해·공군 연합훈련인 호국훈련을 핑계로 북한은 평화로운 연평도를 포격했던 것이다.

연평도는 북한과 겨우 10km 정도 떨어진 서해 최전방으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일으킨 군사도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1999년 6월 북한 경비정 4척과 어뢰정 3척이 북한 어선을 보호하겠다고 NLL을 넘어오자 우리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8척, 초계함 2척으로 선체를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우선 발포 없이 북한의 경비정들을 위로 밀어냈다. 그러자 북한 경비정은 기관포로 선제사격을 가했고 우리 해군은 대응사격으로 물리쳤다. 이것이 제1연평해전이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 진행중이던 2002년 6월29일 대한민국과 터키 축구팀이 3, 4위 결정전을 벌이고 있던 시간에 북한 경비정은 또 다시 북방한계선(NLL)

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은 참수리 357, 358호 고속정 2대를 출동시켜 경고방송을 하며 접근했고 북한 경비정은 참수리 357호에 85mm포를 발사하며 선제 기습 공격을 가했다. 바로 제2연평해전이다. 우리 해군은 북한군을 물리쳤지만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군은 서해전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이듬해인 2011년 6월에 육·해·공군 합동 참모진으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작전사령부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를 창설해 서북도서 방어를 전담토록 하고,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도 대폭 강화해 ‘선 조치 후 보고’ 지휘지침에 따라 신속·정확·충분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작전지침을 선제적, 공세적으로 바꿨다. 병력과 최신 첨단장비를 증강시키고 군사 핵심시설의 요새화와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도 마련했다. 현재 연평도와 주변 바다는 완충 수역으로 되고 포문도 닫혔지만 그렇다고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다.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물꼬를 튼 남북 교류는 그 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합의서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군사합의 이후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맞춰 김정은의 지시로 서해 NLL 부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으며, 금년 5월에는 비무장지대 중 부전선에서 한국군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한 것도 모자라 6월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군사합의가 무색하게 도발과 위협적 발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표류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까지 발생했다. 특히 이 사건은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려는 시기에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렇듯 북한의 도발은 과거가 아닌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성능을 개선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최첨단 전략무기와, 기존에 사진으로만 공개했던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과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신무기 4종 세트’ 실물을 공개했다.

일련의 사태가 증명하듯 앞으로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은 언제나처럼 필요에 따른 도발을 서슴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위협에 굴복할수록 도발의 강도는 높아지고 횡수는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가용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즉각 응징하는 대응과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단호한 대응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기는커녕 우리의 대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안보 앞에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돼야 하고, 국가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국민들의 정신자세도 중요하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미 북 관계와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현재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반도의 앞날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대신한다.

최경선  
인터넷 신문 ‘코나스’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취임 인사 차 향군 방문

## 김진호 회장, “안보역량 강화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김진호 회장은 11월16일 취임 인사 차 향군을 방문한 원인철 합참의장을 맞아 국방 및 안보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우리 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군 원로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0년 병역명문가, 독립유공자 포함 1017가문 선정

##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평범한 사람이 ‘최고의 영웅’



병무청은 11월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7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6·25전쟁 참전용사 고 이상봉 가문을 비롯해 1017가문(5222명)을 2020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가문까지 포함하면서 지난 2004년 첫 선정 이후 최초로 1000가문이 넘는 병역명문가가 탄생했다.

시상식에서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1대가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고 김은석 가문을 비롯한 22개 가문을 초청해 포상했다.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 장관 표창 5가문, 국가보훈

처장 표창 1가문, 병무청장 표창 10가문이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고 이상봉 가문은 올해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가장 많다. 15명이 369개월을 복무했고 육·해·공군 두루두루 복무한 것이 특징이다. 아들 이도형 씨는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니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그 말씀이 가풍이 돼 3대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상식에서

‘가장 보통의 영웅, 병역명문가’를 주제로 특별한 사람은 아니나, 각자의 자리에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평범한 사람이 ‘최고의 영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는 청산리·봉오동전투 승전 100주년,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병역명문가에 포함해 시상했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 향군역사 바로알기 25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안보활동

### 안보상황·군 대응능력 고려, 전략적 접근

최근 우리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 정부의 임기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회의(SCM)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주한미군 유지와 관련된 문구가 빠졌고 미 측이 전작권 전환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임기내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미, 전작권 전환 기본 조건 충족되어야 2022년 전작권 전환 어려울 듯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기본 조건으로 첫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셋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미 측은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조건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향군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입장도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시기의 문제가 아닌 조건에 충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작권은 1950년 6.25 전쟁이 반발하여 백책간두의 위기에 처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7월14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 긴 역사가 시작되었다.

휴전 이후 다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 갔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나 노태우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라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권을 환수하였다.

그러나 2006년 9월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012년 4월17일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향군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군의 대응능력을 고려한 전략적·이성적 접근이 아니라 ‘자주’와 ‘주권’을 앞세운 정치적·감정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향군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국민대회, 전작권 전환 연기 1천만 서명운동, 광화문 및 시청광장 촛불기도회, 향군의 날 전국 각급회 별로 쫓기 대회, 향군회장 방미 친서 전달 및 외교활동, 언론매체를 통한 성명발표 및 기고 등 강력한 투쟁으로 2010년 6월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조정기로 합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향군, 전작권 전환은 국민 생존권 문제 감정적 접근 아닌 이성적 접근 요구

그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0월 8일 ‘한미전략동맹 2015’에 합의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으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2013년 10월 2일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과 시기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재 연기에 합의한 바 있다.

향군은 2차 재연기를 위해서도 주요 언론에 성명서 및 기고문을 보내 재연기의 필요성을 설득 하였으며 정부 요리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안보 정세를 설명하며 재 연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홍보실)

### 안보전망대

#### 美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순풍 기대

미국 하원이 11월18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하원은 이날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과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에이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장과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

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은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주한미군을 통한 미군 전진배치는 미국 국가안보와 부합한다면서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에도 “상호 수용 가능한(mutually agreeable) 내용의 다년(multi-year)단위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국방단신

##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재확인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

서욱 국방부 장관은 11월18일 크리스토퍼 밀러 신임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화통화에서 서욱 장관은 밀러 대행이 국방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에 밀러 대행은 한미동맹

을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모범동맹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의 국방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상호보완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해군 창설 제75주년 기념식 숨은 전쟁영웅들에게 훈장도 전달

해군은 11월11일 창설 제75주년을 맞아 진해군항 서해대에서 창설기념식을 거행하고 숨겨진 6·25전쟁 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서해대는 해군의 모체가 된 '해방병단 시무지' 표석이 세워져 있는 해군 역사의 시작을 함께한 장소다.

이날 기념식은 역대 해군참모총장, 해군 창군원로 및 참전용사, 마이클 도넬리 주한

미 해군사령관 등 내·외빈 50여 명 그리고 진해 해군부대장병과 군무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는 '우리의 바다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초대 해군참모총장 고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양선각자들에 의해 1945년 11월11일 11시 서울 관훈동 표훈전에서 해방병단 결단식(창설식)을 거행하면서 시작됐다.

## 장병들에게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을...

### 육군 21사단에 발열 내의 1만 벌 전달

국방부와 ㈜이랜드월드는 11월11일 육군 제21보병사단에서 발열내의 1만 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국민과 장병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72주년 국군의 날 참여 잇기 챌린지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발열 내의 1만 벌을 전달받은 육군 제21보병사단은 한반도 중동부 최전

선을 방어하는 부대로 올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군 장병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장병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 원격교육홈페이지에서 총 4과목, 2시간 수강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11월1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원격교육은 2020년 기준 1년 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원격교육누리집(www.yebi-edu.com) 주소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

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입력하신 후 원격교육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시면 된다.

원격교육 과목은 국방소개, 예비군복무, 핵 및 화생방전방호, 응급처치 총 4개 과목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을 완료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비군훈련에서 2시간이 이수 처리된다.

# 유엔 참전국 대사관 방문, 무관초청 행사 'UN참전용사 현지 위로행사' 대체 시행...코로나-19 영향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한 6·25전쟁 70주년 사업단

국방부는 10월19일부터 11월5일까지 유엔(UN)참전국 대사관을 방문, 무관들을 초청하여 UN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UN참전국 대사관 방문 및 무관초청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제한되었던 'UN참전용사 현지 위로행사'를 대체하여 시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방부는 각국에 생존해 계시는 UN참전용사에게 드릴 기념품(국방부제작)과 동영상 등을 함께 전달하고 있으며 각국 대사(무관)에게 전달된 기념품과 동영상은 자국의 현지 참전단체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된다.

각국 대사 및 무관들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면서 '대한민국이 이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

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했다.

6·25전쟁 70주년사업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참전국 현지 방문이 제한되어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은 참전용사 모두의 희생과 헌신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참전용사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국군

### 육군56사단 용마연대 김장나눔 행사 지원

56사단 예하 용마연대 성북대대가 11월5일 서울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열린 '2020년 제18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힘겨운 겨울을 맞게 될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열심히 김장을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세대당 약 10kg씩 소외이웃 총 800세대에 전달됐다. 장병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춥고 힘든 겨울,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해군7전단 3월부터 혈액 16만ml 모아

해군7기동전단(7전단)이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과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한 결과 장병과 군무원 4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6만ml의 혈액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장병들은 각자 모은 600여 장의 헌혈증을 제주혈액원, 제주대학병원, 제주백혈병소아암협회 등에 기부했으며 이를 혈액량으로 환산하면 무려 24만ml에 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윤종준 7기동전단장은 "앞으로도 해군은 제주도민으로서 민군상생을 위한 다양

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군 18전비 부대 인근해안가 환경정화

공군18전투비행단(18전비)은 10월28일 올해 첫 태풍 등으로 인해 쓰레기·잡목 등 비산물이 누적되어 있는 부대 인근 강원도 강릉 남향진 주변 해안가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정화활동에는 평소 임무에 필수적인 요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대 장병이 참여했다. 장병들은 "정화활동 후 깨끗해진 해안가를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 해병대1사단 농번기 대민 지원

해병대1사단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11월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병력을 투입해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해병대1사단은 이 기간 중 포항시 장기면과 구룡포읍 등 16개 읍·면·동과 경주시 양남면 지역에 일일 1000여 명 총 1주일 여간 5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지자체의 협조 아래 고령 및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벼짚 정리와 과일 수확, 하우스 정리 등의 활동을 도왔다. 해병대1사단은 매년 봄·가을 농번기 때마다 지역 농가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 '턴 투워드 부산' 22개국 6.25 참전용사 추모

##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거행...11월11일 오전 11시 부산 향해 묵념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11월11일 오전 11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자부와 명예(Pride & Honor)'를 주제로 6·25전쟁 참전용사, 참

전국 대표와 주한 외교사절, 참전국 장병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세계인이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산을 향하여 1분

간 묵념'을 시작으로 전사자 추모명비 앞에서 추모식, 전사자 묘역에서 참배로 마무리됐다.

유엔군 전사자 및 실종자 40,896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명비 앞에서 거행된 추모식은 유엔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후손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미국 워트콤(Whitcomb) 준장 묘역과 캐나다 허시(Hearsey) 형제, 호주 휴머스톤(Humerston) 부부 묘역을 찾아 평화의 사도 메달을 헌정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매년 11월11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티니(Vincent Courtenay)가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이 안장된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할 것을 제안한 이래 매년 11월 11일 11시를 기해 추모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 보훈단신

## 순국선열의 날 맞아 독립유공자 128명 포상



국가보훈처는 11월17일 제8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중국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지경희(여) 선생 등 12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4명(애국장 9, 애족장 35), 건국포장 8명, 대통령표창 76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5명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1,264명, 건국포장 1,368명, 대통령표창 3,778명 등 총 16,410명(여성 493명)에 이른다.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독립운동사료수집 협업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유엔군 및 주한미군사령부 장병 초청 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 개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캠프는 당초 유엔참전국 참전부대 장병들을 초청해 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유엔군 및 주한미군 사령부에 근무 중인 6·25전쟁 참전국 장병들과 참전용사의 2~3대 후손 40여 명을 대신 초청해 진행됐다.

캠프 참가자들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턴 투워드 부산 국제추모식에 참석,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참배 등 추모일정을 보내고 비무장지대(DMZ)인 도라산역, 제3땅굴 등 남북 접경지역 탐방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다 산화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유엔사를 대표해 호주 출신의 스투어트 메이어 부사령관(해군 중장)이 참석해 장병들과 함께 유엔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가 있는 태종대를 탐방하는 등 부산 일정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를 참배하고 있는 UN참전국 장병들

## 호남권 최초 '호남호국기념관' 개관

### 자랑스런 역사 기억 공간...3개 상설전시관 마련



호남지역 최초의 국가수호기념관인 '호남호국기념관' 개관식이 11월13일 전남 순천에서 열렸다.

'호남의 희생과 헌신, 국가가 기억하고 이어 나갈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지역대표와 국가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위치한 호남호국기념관은 9,539㎡(2,885평)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896㎡(1,483평) 규모로 건립됐으며 각층마다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물과 영상관으로 구성됐으며 2층은 항일 의병과 6·25전쟁 등에서 호남지역

의 국가수호 이야기를 담은 3개의 상설전시관이 마련됐다.

3층에는 관람객들이 체험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며 특히 '6·25전쟁 가상현실(VR) 체험전'을 마련하여 기념관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새로운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호남호국기념관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는 역사 공간이자,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는 보훈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2020년 한국 PR대상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가 한국PR협회가 선정한 2020년 한국PR대상 '해외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PR대상은 한국PR협회가 한 해 동안 분야별 홍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홍보상이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 사업은 올해 6·25전쟁 70주년 맞아 22개국 생존 유엔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사업이 제한되면서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이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음을 기억(Remember), 감사(Thank you)의 상징으로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한 대표적인 '보훈 외교' 사업이다.

한국PR협회는 "22개 참전국 국민들에게는 자국의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계기와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22개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감사 메시지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수준 높은 해외홍보 우수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우수회 탐방 / 경기도 구리시 향군

# ‘안보’ 기치 내걸고 위상 강화 ... 제도약 발판 마련



고구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 경기도 구리시 재향군인회는 안보의식 고양과 애국정신 함양이 향군의 위상과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안보역군 향군의 기치를 내걸고 회무에 매진하고 있다.

### 후계세대 안보교육...조국의 미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매년 6.25를 전후로 구리시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관내 중학교 8곳에서 선발된 중학생 300여명이 구리체육관에 모여 ‘안보’를 주제로 골든벨 행사를 갖는다. 퀴즈 형식의 TV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을 벤치마킹한 이 행사는 ‘안보 골든벨’로 명명된 이벤트로,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SBS 최윤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안보 골든벨’은 구리시 향군이 수년째 개최해 오고 있으며 퀴즈 경연을 벌이기 전 전문 안보강사를 초빙, 안보강연을 실시하고 이를 주제로 참가 학생들이 경연을 펼치는 형식으로 교육효과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구리시 향군이 매년 기획하고 있는 ‘안보골든벨’은 강연 위주의 안보 교육에서 즐기는 교육으로 향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후계세대 안보계도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안보 골든벨’ 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생 360명을 초청하여 9회에 나눠 안보교육을 겸한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전적지 및 현충시설 참배와 정화활동을 병행하고 여기에 임태전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안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현충시

설 정화활동을 통한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참여열기를 높이기 위한 팁이다.

여기에 더해 매년 11월 관내 학생 80여명을 초청하여 최전방 부대 및 DMZ를 방문, 병영생활을 경험하며 분단현실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리시 향군의 청소년 안보계도활동은 모두 시에서 주관하는 안보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루어졌다.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한 구리시 향군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사업에 공모했고 보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리시 향군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조국의 미래도 없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구리시는 국가안보의 표상인 태극기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시가 태극기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구리시 향군은 그 중심에 있다. 향군의 날 행사, 통합방위협의회, 지역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국경일 전후로 15일간 강변도로 구리시 전역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 태극기 도시 구리, 중심엔 향군이 향군회관 마련 노력도

안보계도활동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도 뒤지지 않는다. 여성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은 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봉사,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지원, 현충일 추념행사, 한강수계 환경정화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공적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그분들을 위로하고, 남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부분까지 향군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자체와 향군의 ‘상생’ 모범 답안이다.

구리시 향군은 현재 시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다. 보훈회관 입주로 안락한 근무환경은 보장받았지만 회관을 보유한 다른 각급회에 비해 협소한 공간, 임대료를 통한 재정확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구리시 향군은 향군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회관 건립을 위해 먼저 시청, 시의회 등 지자체와 유대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역현안에 대한 협조와 봉사활동, 안보의식 계도 활동 등을 통해 향군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자체에 지역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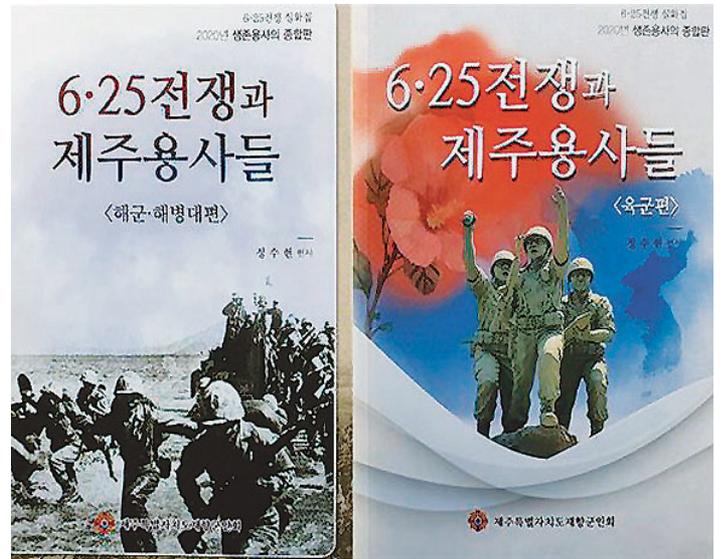
여기에 더해 회관 마련을 위해 여타 보훈 참전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단체들로부터 잠정적인 동의를 얻어낸 상태다.

임태전 구리시 향군회장은 “여건은 무르익어 간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임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조직이 하나 되어 숙원인 향군회관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 ‘6.25 전쟁과 제주용사들’ 출간

제주도 향군...육군, 해군·해병대 194명 실화 담겨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이 정수현 작가와 6.25참전 생존 용사 실화 종합판 ‘6.25전쟁과 제주용사들’을 출간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 제주 참전용사들의 헌백을 위로하고 전쟁영웅을 발굴하기 위해 출간된 이 책은 ‘육군 편’과 ‘해군·해병대 편’ 총 두 권으로 발간됐으며 살아 돌아온 구국 영웅을 중심으로 한 참전용사 194명의 실화가 담겼다.

김달수 향군 회장은 발간사에서 “제주도가 직접 전쟁의 무대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청소년이 참전해 조국을 수호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참전용사들이 남겨놓은 업적을 기록, 보존해 후세에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작가와 매해 발간하는 참전 실화집은 제주도와 6.25 전쟁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전승될 것이라며 전쟁 실화가 앞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태국 향군, 이슬람교인 한국전참전용사 추모

참전용사 희생과 헌신 감사 ... 민간외교활동



향군 태국지회(회장 이형배)는 10월28일 태국 이슬람교인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행사에 참석,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이슬람 참전협회 주관으로 이슬람사원인 하룬 모스크(Haroon Mosque)에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 태국군 이슬람교도 전몰자에 대한 추모와 헌화식이 진행됐으며 이형배 회장을 비롯

하여 하태욱 총영사, 이슬람 참전협회 타나랏 왓차라피췌 회장 등 단체 및 각급 기관장, 이슬람 종교지도자가 참석했다.

향군 태국지회는 추모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태국과 원만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등 민간외교 활동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 대구 향군-광주·전남 향군, 영호남 화합행사

## 동서화합 우의 다져, 안보의식 고취 통한 향군위상 확립



대구시 향군과 광주 전남 향군이 11월 3일, 4일 경주에서 영호남 화합행사를 가졌다.

대구시 향군(회장 김인남)과 광주 전남 향군(회장 나종수)이 11월 3일, 4일 경주에서 영호남 화합행사를 가졌다.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기념행사 및 만찬에는 이용섭 광주 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 향군

회원들을 격려했으며 양측 향군은 상호발전과 협력을 위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선물로 교환하며 우의를 다졌다.

그리고 기념행사와 함께 불국사, 첨성대 등 역사유물을 탐방하고, 장사상륙작전 전물용사위령탑 참배 등 전적지 답사를 통해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올해로 7번째 대구시 향군 초청으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대구 및 광주 전남 향군은 친목도모는 물론 동서화합의 우정을 다졌으며 지역발전과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향군 위상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대전·충남 여성회 '안전한 소비생활' 강연회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양갑숙)는 11월5일, 6일 향군회관에서 공정거래 위원회 후원 안전한 소비생활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배현숙 강사를 초청, "쇼핑은 안전하게, 소비자는 똑똑하게"라는 제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 구미 향군, 대학생 호국 문화 유적지 답사행사 가제



경북 구미시 향군(회장 김원조)은 11월5일 구미대학교 군사학부 환경화학 부사관 학과 학생들과 문경시 용배공원 참배 및 청풍문화재 단지 등을 둘러 보는 2020년 대학생 호국 문화 유적지 답사행사를 가졌다.

# 영주 향군, 제301학생군사교육단 위문



경북 영주시 향군(회장 민병철)은 11월21일 영주에서 다부동 전적지 및 칠곡 호국기념관까지 행군을 하고 있는 경북전문대학교 301학생군사교육단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 2021년 향군달력 제작 배포

### 향군 활동 이미지 수록, 정체성 부각

2021년 신축년 소띠해 향군 달력(3단 375mm×690mm)이 제작 배포됐다.

2021년 향군 달력에는 향군 주요활동 이미지를 수록하여 향군 정체성을 부각시켰으며 이와 함께 월별로 산하업체 홍보이미지도 게재해 영업 홍보에 기여토록 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달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회원 자격 : 군번호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 중앙고속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 전국 가맹점별 할인(10~30%)
    -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 웨딩' 할인 (웨딩, 뷔페 등 전품목 15%)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 각급회 소식

##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10월21일 ~ 11월20일)

###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11월4일, 5일 전주, 진안, 구례에서 구회장단 안보연수회를, 11월12일, 13일 속초, 고성일대에서 행정과장단 안보연수회를, 11월17일, 18일 동해, 삼척에서 사무국장단 안보연수회를 개최. 10월23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미 대선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안보포럼 개최.

**용산구회** : 11월16일 관내 서울자동차고와 배문중 학생들에게 KF94마스크 전달.

**영등포구회** : 11월15일, 16일 충남 예산, 보령, 홍성일대 역사안보 현장 견학 실시.

**노원구회** : 11월18일 노원구청에서 주관하는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 관내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 전달.

### 부산시 향군



**사하구회** : 11월4일 관내 일몰 명소인 다대포 해수욕장과 물운대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 실시.



**부산진구회** : 11월17일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영이었던 여수일대 전적지 순례 및 안보현장 견학 실시.

**금정구회** : 서2동회는 11월11일 김장김치를 생필품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참여.

### 대구시 향군

**동구회** : 10월30일, 31일 선유도 및 부여 일대에서 군산시회와 영호남 교류행사 개최, 우의 증진.

**남구회** : 10월29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갖고 충혼탑 참배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

**수성구회** : 11월12일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에서 나라사랑 안보·역사체험 교육 실시.



**중구회** : 11월8일 여성회와 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리 과수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 봉사활동 실시.

**서구회** : 11월15일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에서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갖고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려.



**달서구회** : 11월10일 장사상륙작전 전적지 위령탑을 참배하고 전적지 주변 자연보호운동 실시, 호국의식 고양

**달성군회** : 11월1일 국립산청호국원 참배 및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호국안보순례 및 전적지 견학 실시.

###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1월11일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국민안보 계도활동과 향군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김정식 구청장에게 향군 공로회장 전수.

**동구회** : 11월14일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기념하여 김좌진 장군 생가지와 헤미읍성 등 안보현장답사 행사 실시.



**남동구회** : 11월6일 태국군 참전비를 비

롯한 포천일대 전적지 탐방행사를 통해 참전용사 열 기리고 안보의식 고취.



**계양구회** : 10월24일에 임학공원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활동 실시. 10월25일 인천시 민주평통 주관 '통일염원 축구대회' 참석, 회원단합과 위상 제고.

### 경기도 향군



**경기도회** : 10월28일 평택시 송탄역 일대에서, 11월13일 병점역 일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홍보와 방역 봉사활동 전개. 여성회는 11월16일 여성회 임원 및 시 군 여성회장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



**용인시회** : 여성회는 11월17일, 18일 직접 재배한 배추 160포기로 김장을 담궈 관내 생계곤란 가정 30가구에 백옥 쌀10kg 1포, 라면 1box, 김1box와 함께 전달.

**수원시회** : 11월17일 청산리전승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성지인 충남 홍성 김좌진 장군 생가 등을 찾아 국난 극복을 위해 일본과 맞서 싸운 불굴의 독립정신 뜻을 기리고 임직원 화합의 시간 가져. 여성회는 11월4일 수원시 보훈회관에서 한국전쟁·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김치 50박스를 기부.

**포천시회** : 10월30일 지역 안보 전적지를 둘러보며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임직원 워크숍 개최. 여성회는 11월12일 군내면 사무소에서 6.25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 실시.

**여주시회** : 11월3일, 19일 여주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이겨내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 보훈가족 및 소외계층 300가구에 김장전달. 11월4일 강릉 방향 휴게소에 위치한 그리스군 참전

비 추도식 참석, 위훈 기려.



**시흥시회** : 여성회는 11월3일 가평 영영방 참전비를 참배하고 자유수호 위한 참전용사들의 의지를 기리고 안보의식 고취. 청년단은 10월31일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 안보현장 탐방 행사의 일환으로 여주 영릉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함양 정신교육 실시.

**군포시회** : 여성회는 11월4일 늘푸른 노인복지관, 군포시립 늘푸른 어린이집, 보훈회관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봉사활동 전개.

**고양시회** : 11월12일 불우참전유공자 및 지역 재가대상자 80가구에 1가구당 김장김치 5kg을 전달.

**파주시회** : 11월12, 13일 지역 재가대상자 69가구에 1가구당 김장김치 5kg을 전달.

### 강원도 향군



**강원도회** : 11월5일 18개 시 군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정사 등 역사·문화유적을 둘러보는 2020년 통일수련회 개최.

**양구군회** : 11월2일 양구군 보훈단체장 및 회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참배행사를 갖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려. 11월19일 고대리 농촌체험장에서 '사랑과 행복나눔 김장봉사' 행사를 갖고 6.25참전용사 및 고엽제전우회원 등에게 김장김치 전달.



**강릉시회** : 11월10일 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한 연탄 2천장을 관내 육천동 소재 사회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

### 충청북도 향군

**괴산군회** : 여성회는 10월23일 국립괴산



호국원에서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환경정화활동 실시.

**청주시회** : 여성회는 11월11일 독고 어른들에게 김장김치와 난방용품 지원.

###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중구회** : 11월 15일 연탄 2,000장 및 솜이불, 전기장판 등 난방용 물품을 유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전유공자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

**대전 동구회** : 11월18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 참전용사 및 불우 회원을 찾아 위로하고 생필품 전달.

**대전 대덕구회** : 11월17일, 18일 향군회관에서 '2020 사랑의 김장담가보내기 봉사활동'을 실시, 참전 및 보훈단체, 생계보조비 수급자, 지역의 독거노인과 보육원, 불우장병 등에게 사랑의 김장 전달.



**공주시회** : 11월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천중학교와 경천초등학교, 계룡중학교에 안전위생키트 500세트 전달.

**예산군회** : 10월25일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예당늪시대회장 및 출렁다리 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청양군회** : 11월4일 청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미화 강사를 초청,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통일안보교육 실시.

**보령시회** : 11월8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해전묘역에서 참배 및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호국의식 고취.

###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11월10일, 11일 양일간 칠곡군 호국공원 봉화군 수목원 등 낙동강 벨트 안보현장 답사 실시.



**무주군회** : 10월29일 무주읍 대차리 제7733부대 차산대대 체육대회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 11월17일 포로수용소 등 거제도 일대 안보현장 견학 실시, 안보의식 고취.



**군산시회** : 10월27일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과 장자도 일대 산책로 청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을맞이 환경정화활동 전개.

**익산시회** : 11월2일 회관보수공사 착공에 앞서 업체로부터 공사계획을 듣고 안전기원제 올려.

**완주군회** : 10월25일 완주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남원시회** : 11월5일 남원제일고등학교 군 특성화반에서 군 관련 안보 교육 실시. 여성회와 향교동회는 11월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총 300포기의 김장김치를 관내 소외가정 40여 가구에 전달. 여성회는 11월3일 사매면 고구마 작업봉사에 참석, 농촌일손 도와.

**전주시회** : 청년단은 11월9일 생활이 어려운 회원 15명에게 반찬 나눔 행사를 통해 온정 전달.

**부안군회** : 11월12일 김영택 안보교수를 초빙, 향군회관에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안보강연회 가져.

**고창군회** : 11월17일 임실호국원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들의 열을 기리는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순창군회** : 11월17일 쌍치면 소재의 6.25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

**임실군회** : 여성회는 11월19일 임실군보훈회관 광장에서 불우한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 실시.

###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11월18일 대구 팔공산과 다부동 전적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답사 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고취.



**광주 서구회** : 10월24일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일대 고구마 농가·일손 돕기 봉사활동 펼쳐. 11월7일 임진왜란 당시 호국승전지인 통영, 거제 일대 안보현장견학 실시.

**목포시회** : 11월11일부터 7일간 목포역, 버스터미널, 장미의 거리, 평화광장, 여객선터미널 등지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등 '마스크 착용 릴레이 캠페인' 전개.

**광양시회** : 여성회는 11월3일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 관내 80개 경로당에 김치 전달.

**담양군회** : 11월12일 해남 보훈공원 6.25 참전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대흥사 등 해남일대 안보역사유적지 답사행사 실시.

**보성군회** : 여성회는 11월11일, 12일 사랑의 김치봉사 활동을 실시, 관내 독거노인 30가구에 전달.

**해남군회** : 11월11일 대흥사 일대에서 남부권 사무국 직원 간담회 및 체육행사 개최.

**화순군회** : 11월12일 고흡만, 여수 북한반잠수정 전수관, 순천만 등을 둘러보는 안보전적지탐방 실시

### 경상북도 향군

**영천시회** : 10월27일 6.25 전자사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 4세대 및 유해발굴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간식전달. 여성회는 11월17일 향군회관에서 4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귀 고령의 6.25 참전용사 70여명에게 전달. 동부동회는 11월8일 은해사 일대 문화답사를 갖고 회원 친목 및 단합 도모.



**문경시회** : 남시욱 회장이 10월23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020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식'에서 안보의식 고취와 취약계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공로로 도민상 수상. 11월3일 안보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전공비, 용배공원 등 관내 전적지 현장을 둘러보는 안보현장체험. 11월12일 문경대대를 방문, 유해발굴작업에 노고가 많은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



**영주시회** : 10월27일 영주댐 방류 저지를 위한 수호위원회 현장 봉사활동 실시. 여성회는 11월3일 봉현면 6.25전쟁 선양비에서 겨울맞이 주변 정화활동 실시.

**김천시회** : 11월6일 정읍시회를 초청, 김천 파크호텔에서 제23차 국민화합 친선교류행사를 갖고 우의 증진.

**구미시회** : 10월29일 자매결연 부대인 5837부대 1대대를 방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1천여 장을 전달. 11월17일 군산시회를 초청,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친목을 다지는 국민화합 친선교류행사 실시.

**포항시회** : 11월19일 전주시회를 초청, 포항산림조합 숲 마을에서 국민화합 친선교류행사를 실시하고 우의 다져.

###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여성회는 11월4일 북면 단감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단감따기 봉사활동 실시.

**창원 마산 합포구회** : 11월6일 도회 안보부장을 초청, '한미동맹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안보강연 실시.

**거제시회** : 10월27일 제과제빵모임에서 직접 만든 빵을 참전용사 가구 및 이웃 12가구에 전달. 여성회는 10월27일 송정리 '소망의 집'에서 시설 청소 및 환경정화활동 전개. 11월10일 호국의식 고취를 위해 산청호국원을 찾아 참배하고 수선사 및 거창 출렁다리를 답사하며 회원 단합 도모. 11월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6.25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180가구에 위로 생필품 전달.

**밀양시회** : 11월4일 회원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연세치과와 향군가맹점 협약 체결.

**하동군회** : 11월5일 적량면 호국공원 내 환경정화작업 실시. 11월14일, 15일 목포 현충탑, 참전 기념비 등 안보전적지와 흥도, 흑산도 일대를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통영시회** : 11월12일 회원들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동서 양한방병원과 향군우대가맹 협약 체결. 여성회는 11월9일 생활이 어려운 6.25참전회원들의 겨울 옷, 이불 등을 세탁해 주는 봉사활동 실시.

**진주시회** : 11월17일 금산면 거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사랑의 쌀 전달.

**울산 울주군회** : 여성회는 11월17일 독거노인 대상 김장봉사활동 전개. 범서읍회는 11월16일 선바위 일대에서 자연정화활동 전개.

**울산 중구회** : 11월17일 창녕 박진 전쟁기념관에서 안보전적지 답사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고취.

### 제주도 향군

**제주시회** : 11월13일 6.25전쟁 역사를 담은 책자와 마우스패드 250개를 하귀초등학교에 전달.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 성우회, 해군 정책설명회 참석

대양해군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자랑스러워



성우회 해군 임원진은 11월20일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이 마련한 해군정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성우회 해군 임원진은 해군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산방지 노력과 국방개혁 2.0 해군추진 계획, 스마트 네이비, 선진 해군 추진현황 등 해군의 2020년 주요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연 성우회 해군 부회장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과 바쁜 격무 중에도 성우회 해군 임원진을 초청해 귀중한 정책을 설명해 주신 부석중 해군참모총장님과 실무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양해군 건설을 향해 날로 발전해 가는 해군의 모습을 보고, 해군 예비역 제독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해군은 성우회 예비역들에게 해군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향후 상호 발전을 위해 현역과 예비역이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 공조를 할 것을 약속했다.

##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의정총동우회 : 12월4일 종로 '한일장' 에서 정기총회.
- ▲정보동우회 : 12월9일 서울대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 ▲대령연합회 : 12월9일 도곡동 설국에서 정기총회.
- ▲포병전우회 : 12월10일 올림픽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12월18일 '산들해' 에서 정기총회.
- ▲백골전우회 : 12월12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창립 55주년 기념식 및 송년회.
- ▲재향여군연합회 : 12월16일 국방컨벤션에서 여군시대 인터넷신문 오픈행사 및 운영위원회의.
- ▲성우회 : 12월17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
- ▲갑종장교전우회 : 12월18일 군인공제회관 장미홀에서 송년간담회.
- ▲충호안보연합 : 12월23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
- ▲ROTC중앙회 : 12월23일 '더 케이 호텔 서울' 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향군장학기금 기부

( '20년 10월 22일 ~ '20년 11월 20일)

###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권율부대 김홍수 1 (3)
- 권율부대 강모아 1 (63)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 (274)

### ▶ 단체

- 내고장사랑재단 30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kvas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 친목단체 활동

### 베트남 보건대학에 장학금 전달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우승란)는 11월11일 서울 현충원 참배 및 메디피스를 통해 베트남 팜찌 보건대학에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 한강방어선전투 기념식



백골전우회(회장 이장호)는 11월7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6.25전쟁 백골부대 한강방어선전투 기념식을 거행했다.

### 창립 21주년 기념식



단기간부사관총동문회(회장 정선기)는 11월12일 국방컨벤션에서 2020년도 임원회의 및 창립 2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 72주년 포병의 날 행사



포병전우회(회장 이국범)는 10월23일에 전우회 사무실에서 72주년 포병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 다부동 전투 구국영령 추모제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회장 박형수)는 10월24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제70주기 다부동 전투 구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했다.

### 철의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 추모제



6.25참전유공자회(회장 노무식)는 11월5일 강원도 철원군 동성을 평화문화광장에서 철의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 추모제를 거행했다.

### 6.25참전 전사자 287위 합동추모제



철도참전국가유공자회(회장 연규홍)는 10월29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제21회 6.25참전 전사자 287위 합동추모제를 거행했다.

### 장단 · 사천지구 전투 전승행사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흥희)는 11월5일 파주 임진각 광장에서 장단 · 사천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거행했다.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

# 꽃다운 나이로 산화한 7,000여 녀 기리는 안보교육의 장

## 71명 학도병이 북한군 침공 저지한 경북 포항전투가 백미



###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6.25 전쟁 당시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 학생들은 펜을 던지고 총검을 잡고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자진 참전하여 꽃다운 나이로 7,000여 명이 산화했다.

특히 이곳 포항은 낙동강 최후 방어선으로 육군 제3사단 소속 학도의용군 71명이 포항여중(현, 포항여고)에서 단독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김춘식 외 47명이 산화한 곳이며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도의용군이 희생된 격전지로 전투에 참가했던 학도의용군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9월16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03번지 용흥공원 내에 개관했다.

총 면적 4,062㎡에 연면적 903㎡의 2층 건물로 총 16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1층은 전시실·안내실·사무실, 2층은 시청각실·세미나실·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실에는 당시 학도의용군들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류와 착용했던 복장을 비롯하여 일기장, 사진 자료 등 귀중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시청각실에서는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다.

1996년 6월 청와대 등 각계에 건의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을 추진, 국방부의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비 중 일부를 지원받아 포항시에서 2002년 7월에 건립했다.

### ※경북 포항지구 전투

경북 포항지구 전투는 1950년 8월10일부터 31일까지 포항지구에서 학도병, 국군 제3사단, 민부대(민기식 부대)가 북한군 제5·12사단, 제766부대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다.

국군 제3사단이 영덕과 강구지역에서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는 동안에 안동지역으로 남하한 북한군 제12사단이 동남진하여 1950년 8월10일 포항 북쪽의 흥해를 점령했다. 이에 따라 국군 제3사단의 퇴로가 차단되고 포항이 함락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포항시 내에는 해군 경비부 요원 약 300명, 공군 포항기지부대 1개 중대, 경찰과 청년방위대 약 3,000명이 있었고, 제3사단 후방지휘소가 위치한 포항여자중학교에 학도의용군 71명이 있었다.

8월11일 북한군이 소티재를 넘어 포항시내로 진입하자 제3사단 후방지휘소는 학도의용군을 외곽에 배치하고 행정병 60여 명을 통제하여 학교 뒷산을 점령하게 하는 한편 일부 병력으로 보급품과 기밀문서를 후송했다.

학도병들은 스스로 2개 소대를 편성하여 8월11일 새벽 4시부터 11시간 동안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했으며 학도병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제3사단 요원들은 철수를 완료했다. 이 전투에서 71명의 학도병 중 47명이 전사하고 4명이 실종되었으며, 13명이 포로가 되었다.

이와 같은 학도병들의 분전감투로 북한군의 포항시내 진출이 지연됨으로써 제3사단 사령부와 기타 지원부대 및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이 무사하게 안전지대로 철수할 수 있었다.



### 건강정보

## 중·장년 여성의 적 골다공증... 전체 환자 94% 여성

### 주요 증상

골다공증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X-ray 검사에서 우연히 골절을 발견하거나, 골절로 인해 통증을 느낀 후에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는 흉-요추 이행 부위 척추체 골절이 가장 흔하며 약해진 척추체는 자연적으로 또는 미미한 손상 후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척추체 압박골절 발생시 대부분 이환된 척추체 피부분절을 따라 통증이 발생하며 안정 시에는 통증이 경감되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또 척추 주위 근육에 심한 압통을 동반한다. 여러 개의 척추체가 이환된 경우 등이 구부러지고 키가 작아지는 등의 변형이 동반될 수 있다. 80대 여성의 15%, 남성의 5%를 차지하는 고관절 골절은 노인들에게 장애와 독립성 상실을 유발하여 가장 심각한 골절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손목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주요 원인

뼈에는 칼슘, 인과 같이 뼈를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고 적당한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는 칼슘과 다른 무기질의 적절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호르몬이 관여하며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vitamin D 공급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은 골 형성과 골 흡수의 불균형, 즉 골 형성보다 흡수가 많아 골량이 감소하여 야기된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 폐경 등이 있고 2차적으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로는 약물치료(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소화기 질환(흡수 장애, 만성 간질환 등), 내분비 질환(성선기능저하증, 쿠싱 증후군,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당뇨 등), 혈액종양 질환, 류마티스 질환, 유전성 질환 외에도 장기 이식, 생활습관(음주, 흡연, 활동 부족 등)이 관련이 있다.

### 진단 및 치료방법

골밀도(BMD, bone mineral density)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로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D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을 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젊은 여성의 골밀도에 비해 -2.5 SD 이하인 경우를 골다공증으로 정의한다.

낮은 골밀도는 압박골절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골밀도만으로는 골절 위험도를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정량적 초음파나 CT 등을 이용하여 골의 양과 질을 평가할 수 있고, 칼슘, vitamin D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갑상샘·부갑상샘기능검사, 뼈스캔 등의 검사를 통해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골다공증 치료의 기본은 예방이며, 적절한 영양소 특히 칼슘과 vitamin D를 섭취하여야 한다. 골다공증환자의 약물치료로는 골 흡수를 억제시키기 위해 여성호르몬(Estrogen) 대체요법, Selective estrogenreceptor modulator(SERM) 제제, bisphosphonate, calcitonin, denosumab 등의 약제가 사용되며, 골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갑상샘호르몬제제와 다른 호르몬제제 투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골절이 발생한 경우 골절에 의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2-3주간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심하게 저해되는 경우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Kyphoplasty)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좋은 효과를 보인다. 고관절, 손목 골절의 경우에도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예방법

골다공증의 증상이 이미 나타난 뒤에는 치료해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약이나 주사를 써서 치료 한다고 하더라도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 등의 위험인자를 피하고 칼슘, vitamin D 보충,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골 감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운동으로는 하루 30분 이상의 체중 부하 신체 활동(걷기, 가볍게 뛰기, 계단 오르기 등)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도록 권장되며 선별검사로서는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에서 시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보현장 : 판문점(JSA)

# 향군, 안보역량 강화위해 판문점 방문... 활동 추진동력 마련

## 무장에서 비무장으로

“과거에는 경비대원들이 화기를 휴대한 채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모두 비무장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오전 남북한이 최근 접경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T2) 앞. JSA 한국군 대대장의 안내 멘트에 향군 견학단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경비대원들을 향했다. 예전에 익숙하게 보아왔던 모습과 많이 다르게 방탄헬멧도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이였다.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장단과 임원진 30여명이 이날 판문점 견학을 실시하면서 과거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모습과 가장 달라진 현장을 보는 순간이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이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주요 간부들이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판문점을 견학함으로써 안보의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제한이 있었음에도 안보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한 향군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남북 간 적대의 역사와 희망찬 교류 협력의 역사가 모두 녹아있는 장소인 판문점을 방문해 급변을 되돌아보고 내년 향군의 안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판문점의 애환

판문점은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62km, 북한 평양에서 남쪽으로 215km 떨어진 곳으로 군사분계선상 동서로 800m 가량 걸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이다. 판문점은 6·25 전쟁 전에는 초가집 정도만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가로운 시골 마을로 ‘널문리’라고도 불렸다. 6.25전쟁의 휴전회담이 개성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여 진행되면서부터 갑자기 국제적인 이목을 끌게 되었다. 이곳의 작은 상점 앞에 회담장이 마련됐는데 중국군이 이 널문리 가게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판문점이 됐다. 휴전회담을 마친 뒤에는 정전협정 조인을 위해 인근에 목조건물을 지었고, 이후 1km 남쪽의 현재 위치로 옮겼다.

판문점 회담장은 애초에 천막이었으나 휴전이 장기화되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과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이 항구적인 건물로 바뀌었고, ‘자유 집’(1965)과 ‘판문각’(1968) 등 콘크리트 건물도 들어섰다. JSA 설치 이후 남북의 군인들은 판문점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만행 사건으로 상황이 변했다. 북측 감시 시야 확보를 위해 JSA 내 미루나무를 가지치기하던 미군 장교 두 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측 간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표시하고 폭 50cm, 높이 5cm의 연석을 설치하면서 경비병을 포함한 모든 인력이 MDL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연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남북 장병의 모습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 판문점과 향군

판문점은 휴전 이후 1953년 8월 5일~9월 6일까지 1개월에 걸친 포로교환, 1976년 8월 18일 도끼만행사건, 2017년 북한군 병사 귀순 총격 사건 등이 일어나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

북핵 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의 핵심 국익이고 세계평화에도 직결되는 과제다. 특히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사실상 바이든이 승자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면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을 맞아 향군은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의 안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판문점을 찾아 굳건한 안보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안, 2019년 6월 30일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가진 회담까지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의 현장을 지켜내고 있다.

이러한 판문점의 역사적 행사에 향군도 동참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1천만 향군 회원의 하나된 마음을 담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한마음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향군은 이날 서울 본회를 비롯해 전국 12개 시·도회, 산하업체에서 6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성동 별관~적선로타리,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에 이르는 1.2km 구간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장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을 연도에서 환송했다. 향군은 또 통일대교 앞과 자유로 휴게소 입구에도 현수막을 설치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도에 오르는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성원을 보냈다.

## 향군의 안보활동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안보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의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안보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후 ‘향군 정체성 제정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라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향군의 정체성을 ‘안보단체’로 규정해 순수 안보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보의식 계도와 국가 안보정책 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안보단체로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3대 안보활동 중점을 기초로 11개 과제로 이루어진 안보활동 기조를 선정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2017년과 2019년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지원,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대규모 환송행사,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군사합의 지지 성명,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미 워싱턴 ‘추모의벽’ 건립성금 모금전 달, 미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 개최, 한일갈등 조기 해소를 위한 방일활동 등 안보단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향군이 이번 견학을 통해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인 판문점에서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고 안보의지를 다져 더욱 힘찬 향군안보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 대한민국 최전방 ‘OP.O’

김진호 향군회장을 비롯한 이번 견학단은 판문점 JSA 경비대대를 거쳐 벨리저 홀에서 판문점 지역 현황설명을 듣고 OP오울렛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 대통령 기념식수 장소 → 도보다리 → 대성동마을 순으로 견학을 실시했다. OP오울렛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전방 GP다. 이 소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무장지대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감시, 수색정찰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곳에는 태극기와 유엔기,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있어 한반도 안보의 핵심지역임을 대변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5m 떨어진 오울렛 소초는 역대 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귀빈들이 다수 방문한 곳으로 이 곳에서 작전현황을 브리핑 받는 모습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전 세계로 송출됐다. 이 소초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낙동강방어선 영산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미국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받은 조셉 오울렛(Joseph Ouellette) 일병의 전적을 기리기 위해 ‘Observation Post Ouellette(OP.O)’라는 이름이 부여됐다.

## 판문점과 대성동 자유의 마을

판문점 사진에서 늘 등장하는 파란색 건물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걸은 길 양 옆에 있으며 북측방향으로 왼쪽부터 T1, T2, T3로 구성된다. 임시(Temporary)라는 뜻을 가진 T1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인데 내부 견학은 T2만 가능하다.

견학단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견학에 이어 기념식수 장소로 이동했다. 이 기념식수는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953년생 소나무에 백두산과 한라산의 흙을 뿌리고 대동강 물과 한강 물을 준 소나무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돌 표지판이 있다.

기념식수 장소를 지나 견학단은 남북정상이 함께 산책하고 대화했던 판문점 도보다리를 답사하고 대성동 자유의 마을로 향했다.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의 마을을 둔다고 명시한 정전협정문에 따라 우리의 대성동 마을이, 북한에는 기정동 마을이 생겼다.

대성동 마을은 북한까지 약500m 떨어진 곳에 있는 만큼 이 곳 주민들은 국방과 납세를 면제받

는 등의 여러 혜택이 있지만 생필품을 사기 위해 문산 시내로 다녀야 하고 통금시간도 지켜야 하며 주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도 정해져 있다고 한다.

견학단이 방문한 대성동 민정중대 소초에서는 당일 시계가 매우 좋아서 개성공단, 기정동, 송악산까지 육안 관측이 가능하였다. 망원경으로는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옆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까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 남북화해교류협력의 상징성을 가진 채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사라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의 지원센터가 더욱 애처롭게 다가왔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왔음에도 북한이 이를 외면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대해 향군은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향군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2018년 남과 북이 합의한 판문점공동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도발행위로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합의에 의해 개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위중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진영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안보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가 되는 총력안보체제의 결집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날 민정중대 초소에서 바라본 전방은 철책선도 없이 나무숲으로만 이어진 군사분계선으로 이곳의 민정중대 장병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긴장감 속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없이 웅변하고 있었다.

## 맺는 말

지금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안보 파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사항이 많아질 시기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북핵문제에 한·미의 탄탄한 공조 아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첩첩산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연한 자세로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고조되는 중요한 시기에 판문점을 견학한 향군회장과 임원진은 최전방 OP.O에 나란히 게양된 태극기와 유엔기, 성조기의 힘찬 필릭임처럼 굳센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중지를 모아 안보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소망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생생한 안보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향군 안보활동에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향군이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호국안보국)